

시키보의 섬유 사업 - 기구 개혁으로 체질 개선 가속화

시키보는 섬유 사업의 체질을 서둘러 개선하고, 섬유 사업의 수익력을 일본 제조업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시급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2005년 4월 1일자로 회사의 기구를 개혁하면서,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과제를 마음껏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키보의 섬유 부문은 오래 전부터 적지 생산, 적지 판매를 경영 지침으로 하고 있었다. 침장 소재를 담당하고 있던 생활 자재 사업부와 봉제품을 담당하기 위하여 새로 만든 제품 사업부는, 각기 담당 사업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 자회사인 시키보 고난(江南)이나 인도네시아의 멜텍스 공장의 조업을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두 자회사의 조업 책임은 직물과 편포의 판매를 주 임무로 하는 신설 텍스타일 사업부가 맡게 하였다.

따라서 생활 자재 사업부와 제품 사업부는 스피디하면서도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 자재 사업부에 대하여는 의류 사업팀과는 전략도 전술도 다르다고 하여 섬유 부문에서 분리시켜 생활 자재 부문으로서 독립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장 조업의 책임이 면제된 두 사업부는 매우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공장의 조업 책임을 면해 준 것은 그 만큼 업적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며, 사업 실적에 따라서는 다시 검토해 볼 방침이라고 한다.

시키보에게는 2005년이 2개년 경영 계획의 최종 연도로서, 그 동안 목표로 해오던 복배(復配 ; 주 배당의 부활)의 가능성은 경영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연결 베이스의 이월 손실도 중간기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담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번 개혁은 착실하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섬유 사업의 체질도 강화할 것을 2005년도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할 새로운 경영 계획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기 위하여도 2005년에 해야 할 체질 개선 작업은 모두 끝낸다는 방침이다. ♣